서효인의 '소설처럼'

우리는 신이 아니지만 -구병모 '바늘과 가죽의 시'

이제 초등학생이 된 둘째 아이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다. 늙지 않고 살 수는 없느냐는 것이다. 왜 늙지 않아야 하냐고 물어보면 늙고, 늙고, 또 늙으면 죽으니까 늙으면 안 된다고 한다. 죽으면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면서 상상만 해도 슬프다는 듯 풀이 죽어 말한다.

인류가 동물과는 구별되는 사고(思考)의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품었을 이 거대한 질문에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 그저 그런 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돌릴 뿐인데, 아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한다. 올 추석에 소원을 빌면 된단다. 모두가 죽지 않게 해 달라고. 그리고 누구도 태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죽는 사람이 없는데 태어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질 거라나 뭐라나.

아이는 크면서 살고 죽는 문제는 인간의 손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철학적으로 죽음을 사유한다. 인간은 모두 죽고, 나는 인간이고, 고로 나 또한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간단명료하여 매섭기까지 한 명제가 우리의 삶 기저에 흐른다. 그 흐름을 되돌리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힘이 있다면 그는 신일 것이다. 신은 탄생과 죽음을 주관할 것이다. 신은 죽지 않으며 겨우 삶의 가느다란 연명에 연연하는 인간을 굽어살필 것이다. 혹은 심판할 것이다. 신은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신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신은 우연히 태어나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추석에 보름달에 빈다는 소원은 신에게가 아니라면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소원인 셈이다.

구병모 작가의 신작 소설 '바늘과 가죽의 시(詩)'에는 신인 듯 신이 아닌, 그럼에도 신에 가까운 존재인 주인공이 등장한다. 구전설화 '구두장이와 꼬마 요정'에서 모티브를 얻은 듯한 인물은 그러나 요정의 모습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영원'을 산다.

그들의 능력은 전지전능함이 아닌 특수한 기술에 국한되는데, 꼬마 요정이던 시절의 주특기를 살려 가죽으로 실로 꿰어 신발을 만드는 데 숭고한 마력을 일으킨다. 그들은 장인이라는 인간의 영역 하의 직업군으로 내려와, 그저 구두를 만들면서 가죽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어디서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채로, 어느 날 어떻게 생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기에 신은 무기력하다. 자신의 주변을 가득 채운 유한한 존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없다. 그는 영원히 살기에 순간을 빼앗긴 것이다. 무한한 생이기에 찰나의 머무는 순간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다.

다행히 이는 소설 속 이야기다. 우리는 언젠가 기어코 모조리 죽는다. 소설의 주인공은 구두를 만들며, 소임을 다하는 소일을 보내면서, 도리어 생의 끝을 갈구하는 듯 보인다. 끝이 없기에 끝나 버린 삶을 무두질과 바느질로 깁고 잇는 듯하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삭아지고 버려지는 가죽구두의 표면에 자신의 존재를 기록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만드는 구두가 그에게 최고의 순간이라는 듯이.

그리하여 '바늘과 가죽의 시'는 우리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의 찰나를 되짚게 하는 소설이 된다. 소설 속 구두장이들과 달리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찰나의 빛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인간에게는, 참혹하게도 그중 착하고 순하던 우리의 이웃에게는, 뜻하지 않게 죽음으로 향한 사고(事故)가 사고(思考)할 틈도 없이 닥치고는 한다. 누구도 그렇게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잔인하고 애석한 운명과 그로 인한 슬픔을 한낱 인간인 우리가 감히 헤아릴 도리가 없다. 다만 앞으로 할 일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바늘과 가죽의 시'에서, 인간의 모습을 한 요정은 본인의 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그들의 업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기 위함도, 명예를 얻기 위함도, 영생을 위함도 아니었다. 그들이 만든 구두가 타인의 발을 감싸기 때문에 더 편하고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려 했다.

대부분의 끔찍한 사고는, 이러한 '일'의 기본에서 벗어난 행위에서 비롯된다. 그 행위의 피해자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곳에서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시인〉

社說

5월항쟁 참여 고교생 '명예 회복' 서둘러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까지도 '계엄법 위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항쟁의 진실을 알리려다 학교에서 제적되고 징역까지 살았지만 법의 허점 때문에 재심을 받을 수 없어 여태껏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이강희(59) 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서에 따르면 지난 1980년 7월 12일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씨는 "(신군부가) 12월 12일 자기의 상관 정승화를 없애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병력과 탱크를 빼돌려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등사해 배포하는 등 5월항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다 붙잡혔다. 재판에 회부된 이 씨는 그해 11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장기 8월·단기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했고, 소년부에서 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체포 이후 10개월을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정 또는 처분'을 받은 소년수(少年囚)는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5·18 특별법상 재심 자격을 보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돼 체포·구금되거나 사망한 고등학생은 모두 257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소년수로 분류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꽃다운 나이에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교도소에 갇혀야 했던 소년들이 법의 허점 때문에 여태껏 명예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며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특별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루빨리 이 씨 등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나주 공공기관 '지역 구매' 좀 더 늘리기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지역 우선 구매'를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구매 실적이 줄어든 기관은 전체 16개 기관 중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11개 기관이나 된다. 지역 우선 구매는 국토교통부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16개 기관과 공기업의 '광주·전남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은 모두 8823억87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1104억900만 원보다 20.5%(2280억2200만 원) 감소했다. 특히 한전의 지역 우선 구매 금액은 81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5억 원이나 감소했다.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2019년(23억7700만 원)에 비해 71.8%(17억600만 원)나 줄어들었다. 우정사업정보센터(11억 원→3억 원)와 한전KDN(403억 원→140억 원) 등도 지역 구매 실적이 반토막 났다.

농업 관련 기관들 역시 지역 우선 구매를 줄였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5억8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3.5% 감소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38억 원으로 18.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03억 원으로 6.4% 감소했다.

지역 우선 구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물품 구매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줄여서야 되겠는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지역 우선 구매를 좀 더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뇌졸중은 막을 수 없는 질환인가

김성현
성가롤로병원 신경외과 과장

의대 본과 1학년 때 예방의학 교수님께서 강의 중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증'과 '뇌졸중'을 헷갈려 하니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뇌가 졸고 있는 중'으로 기억하라는 농담이었다. 우리가 졸고 있으면 기억도 나지 않고 움직임도 둔해지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잠에서 깨어나듯 기능이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뇌졸중이란 뇌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서 뇌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신경학적 장애가 남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특히 뇌졸중은 암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환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 위기까지 유발한다.

뇌졸중은 출혈성과 허혈성 모두를 포함한다. 허혈성은 뇌혈관이 막힘에 따라 뇌혈류가 감소돼 뇌조직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뇌경색과 일과성 허혈성 발작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뇌경색에 비해 훨씬 예후가 불량하고 위험한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자. 뇌출혈은 발생 기전에 따라 여러 아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 출혈,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 출혈 또는 뇌혈관 기형 등 매우 많은 원인이 있다.

따라서 뇌출혈의 원인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가장 흔한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장 흔한 뇌실질 출혈은 고혈압성으로 발생하지만 이전과 달리 항고혈압제 사용 증가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고혈압은 장기간 조절되지 않으면 소동맥 혈관벽의 유리질 변성에 의한 세동맥 경화증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비대해져 막히면 열공 경색이 발생한다. 이러한 혈관 변성은 탄력이 감소하므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시 파열로 이어져 뇌실질 출혈이 발생한다. 즉 열공 경색과 뇌실질 출혈은 원인이 같다. 따라서 고혈압을 치료하면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까지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 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에 의한 뇌출혈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술이나 약물 치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끔 뇌출혈과 뇌경색을 같은 뇌졸중으로 보고 항혈소판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영상학적 진단 기법의 발달로 뇌동맥류의 진단 케이스가 매우 많이 늘었다. 동맥꽈리라고도 불리는 뇌동맥류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혈관에 발생하므로 위험하다.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사망률과 후유증이 많아 조기에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후순환계의 동맥류나 두개강 심부의 동맥류는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벤션이라 불리는 혈관 중재술의 눈부신 발달로 치료 결과가 비약적으로 좋아졌다.

하지만 동맥류라 하더라도 모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두개강 내에 위치하더라도 상상돌기라 불리는 두개골 주위에 발생하는 경우나 크기가 3㎜ 이하면 파열의 위험이 매우 낮아 치료보다는 영상학적으로 추적 관찰을 권장한다. 동맥류의 크기가 5㎜ 이상인 경우 적극적인 동맥류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로 출혈 예방이 필요하다. 크기가 작다고 파열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의 변화로 파열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동맥류를 진단받고 경과를 관찰 중이라면 적극적 혈압 관리와 금주, 금연과 같은 생활 습관의 교정은 동맥류 파열의 위험을 떨어뜨린다. 또한 고지혈증 역시 동맥류 내의 염증을 유발해 파열의 위험을 높이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뇌출혈과 뇌경색이 발생하면 각각의 원인에 따라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이들 질환의 치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막히면 뚫고 터지면 막는다'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상반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뇌경색과 뇌출혈을 예방하는 치료는 몇몇 특정한 뇌출혈, 예를 들어 모야모야병 또는 뇌혈관 기형과 같은 원인을 빼고 상당히 겹친다. 즉 뇌경색과 뇌출혈의 예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리하자면 평소 금연·금주·운동을 통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혈압·당뇨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無等鼓

할머니 전성시대

오랜만에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을 찾아보았다. 할머니의 그림은 언제 봐도 편안하고 사랑스럽다. 76세 되던 해, 손자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안나 마리 로버트슨 모지스 할머니는 101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행복한 화가'로 살았다. 할머니가 남긴 그림은 1000여 점이 넘는다. 대표작 '설탕 만들기'는 14억 원에 팔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란 책에서도 만날 수 있다.

토트넘의 광팬이자 축구선수 손흥민을 그린 그림으로 눈길을 끈 영국의 로즈 와일리 할머니는 76세에 영국에서 가장 '핫한' 신예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85세에는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았고, 올해 국내에서 기획전을 열기도 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칠곡할매 글꼴'이 인기다. 뒤늦게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은 개인 당 2000여 장의 글씨를 써 가며 글꼴을 제작했는데, 그중 5명의 이름을 딴 5개의 글자체가 완성됐다. 글꼴은 음식점 비닐봉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칠곡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 중이다.

바야흐로 '할머니들 전성시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아님을 실제로 보여 주는 할머니들의 활약상이 눈부시다. 지난해 여성잡지 '보그 코리아'에는 곡성·구례의 할머니들이 모델로 데뷔했고, 순천 할매들의 그림 에세이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는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 출품되기도 했다.

광양에 사는 94세 김두엽 할머니는 얼마 전 '그림 그리는 할머니 김두엽입니다'란 그림 에세이 책을 펴냈다. 84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TV '인간극장'에 소개되기도 했다. 5월에는 아들인 이현영 작가와 서울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할머니의 그림을 지난 2018년 고흥 남포미술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꽃과 나무나 해수욕장 풍경 등 '동화 같은' 그림 앞에서 참 행복했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이뤄 가는 할머니들의 이런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아닐까. 이들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또다시 마음이 따뜻해진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 고

광양의 매력에 빠진 이유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

광양(光陽)은 지명 그대로 빛과 볕의 정기가 가득한 태양의 도시이다. 일찍이 어사 박문수는 "조선지(朝鮮之) 전라도(全羅道)요, 전라도지(全羅道之) 광양(光陽)"이라며 광양을 살기 좋은 고장의 으뜸으로 꼽았다.

지난 30여 년간 단일 제철소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광양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2020년도 기준 인구는 15만 1769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예산도 1조 원을 돌파해 광양만권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다.

대한민국 산업 경제의 중심지인 광양시는 백운산·섬진강·광양만 등의 천혜의 자연과 문화예술 그리고 멋스러움이 어우러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나날이 변모해 가고 있다.

광양은 주민의 평균 연령이 41.8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아동여성 친화도시 비전 선포 등을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육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시책을 추진해 지난해 보육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2017년에는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으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을 출범시켜 지금까지 66억여 원의 기금을 모았고, 정기 후원도 3만 3000여 계좌를 달성했다. 이 기금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 사업을 추진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전국 지자체에 우수 사례로 전파되기도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까지 19년간 총 사업비 905억 원을 들여 차별화된 교육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포함한 '대학 평가 상위 10개교' 합격자 비율이 2018년 14.5%, 작년 16.6%에 이어 올해는 19.3%로 매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양은 예로부터 장인의 고장이며, 맛과 멋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종대왕이 차고 다닐 정도로 명품이었던 광양 장도와 광양 궁시,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광양 죽필을 통해 광양 장인들의 올곧은 정신을 만날 수 있다. 올해 3월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넓혀 주고 있다.

참숯과 청동화로, 구리 석쇠에 독특한 양념을 재운 광양 불고기는 천하일미 마로화적(天下一味 馬老火炙)으로 알려질 만큼 미식가의 사랑을 받아왔다. 고로쇠·매실·재첩·벚굴·전어·닭불고기·장어·기정떡 등 먹을거리 역시 풍부하다. 명산 백운산과 오염되지 않은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구성해 어린이 테마파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구봉산 관광단지, 섬진강 뱃길 복원, 망덕포구 해양레저 단지, 백운산 치유의 숲 등 특화된 관광 힐링 코스를 만들고 있다. 낮에는 백운산과 섬진강 그리고 구봉산을, 밤에는 광양만의 야경을 지향점 삼아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광양시는 2차 전지, 소재부품, 수소산업을 미래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과 포스코 2차 전지 유가금속 추출 사업 및 리튬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친환경 2차 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광양만권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4개 기업과 1조 3742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청년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65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광양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지난해 1기 졸업생 중 17명이 포스코 그룹과 연관 회사에 취업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뀐 우리 광양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새롭게 변화하는 희망찬 도시 광양'을 위해 시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고자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